

## 만나가 지겨우신가요?

### 소개

제 삶에는 주님이 절실히 필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고, 필요는 충족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지 않아. 저는 혼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오늘날의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냥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돌볼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당장 그분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시길 원했다. 나는 전에 그를 따랐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과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특정한 사건들을 공부하는 것이다. 위기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우리 삶의 위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형적인" 대응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당면한 상황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 일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Egypt

### 이 과에서 사용된 성구들

출애굽기 15:22 – 25

출애굽기 16:1 – 5

출애굽기 16:11 – 15, 16 – 30, 30 – 35

출애굽기 17:1 – 3

민수기 14장

### 배경

모세는 막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한 구원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 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은 메뚜기와 모기와 물이 피로 변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과 죽음의 천사가 어린양의 피로 집이 덮이지 않은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의 갈라짐을 목격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마른 땅 위를 걸어 바다를 건넜다. 그들은 그들을 쫓던 애굽인들의 죽음을 목격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유민으로서 첫 번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Red Sea

### **그들이 목마르었더라 - 출애굽기 15:22 – 25**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여행하여 목이 말랐습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세에 대해 "원망"했습니다. 약 300만 명의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위한 물이 실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 은 사흘 전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백성의 반응에 더 가까웠다 . 하나님은 (다시) 움직이셨고 300만 명의 사람들이 마실 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 **광야의 굶주림 - 출애굽기 16:1 – 5**

두 번째 위기는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찾아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얼마나 원망했는지 주목한다.

3절은 매우 계시적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가짐, 즉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말해 준다.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 노예가 되는 것을 더 좋아했으며, 거기서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생각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 **하나님은 다시 공급하십니다 - 출애굽기 16:11 – 15, 16 – 30, 31 – 35**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만나도 주셨습니다. 만나(Manna)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이 양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16-30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만나를 얻으라고 지시하셨는지를 말합니다(그들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모으면, 만남은 구더기로

변했습니다. 만나는 그들이 매일 필요로 하는 것, 즉 그들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 설명하고, 그 떡이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을 지탱해 주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참고: 오메르는 약 2쿼트 또는 1/2갤런입니다.)

이 기적의 크기를 느끼기 위해 몇 가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나 한 알의 무게가 약 1파운드라고 가정해봅시다(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하루에 약 1파운드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는 데는 하루에 300만 파운드, 즉 하루에 1,500톤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일 년 동안 먹이기 위해 1,095,000,000 파운드, 즉 5,475,000톤/년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점:** 만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지탱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필요와 원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까? 왜 그런가요, 아니면 왜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  
주어야 합니까? 왜 그런가요, 아니면 왜 그렇지 않나요?*

### **다음 위기에 대한 잘못된 대처 - 출애굽기 17:1 – 3**

매일 300만 파운드의 식량이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한 후, 이스라엘은 다음 위기 때 무엇을 했는가? 출애굽기 17:1-3은 그들이 불평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불평했는가? 여러분이 매일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그리워하거나 쉽게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 아버지를 원망함 - 민수기 14장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할 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사고방식, 즉 사고방식을 발전시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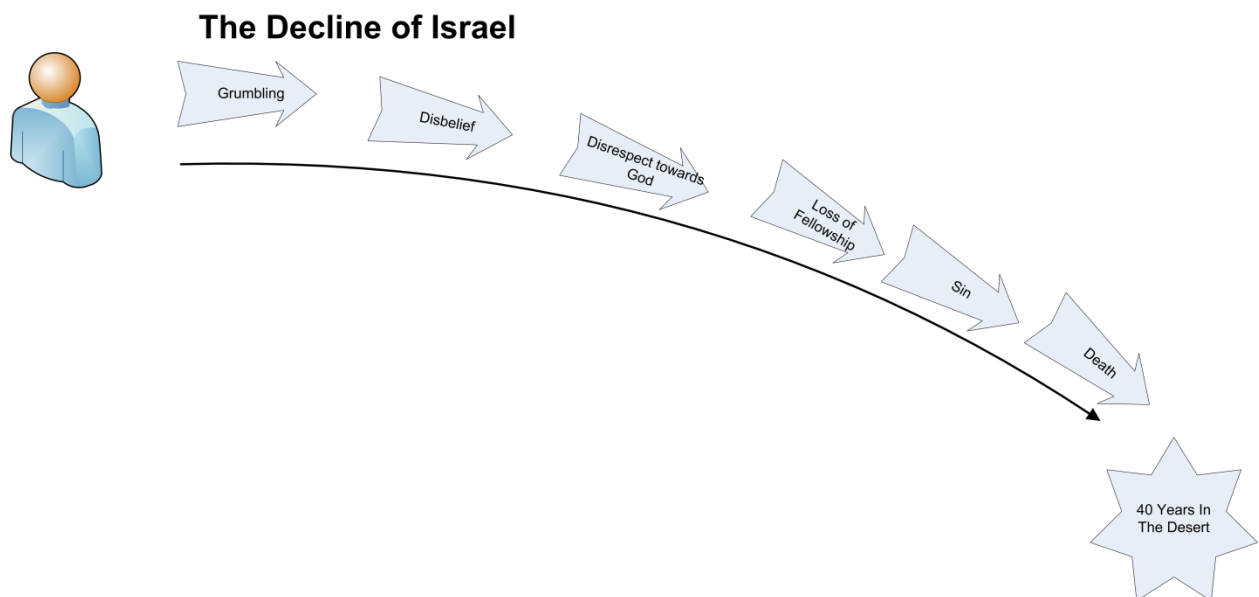
지속적이거나 습관적인 투덜거림→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경

하나님에 대한 불경→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

죄→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

죄→ 죽음의 삶



민수기 14장은 매우 많은 것을 밝혀 줍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12명을 파견하여 그 지역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후에 정탐꾼들이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그룹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매우 비옥하고 비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10명은 그 땅에 있는 적들의 규모와 그들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을 퍼뜨렸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하게 되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요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자들, 그분의 지시 또는 공급하심에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직접 위협했지만, 하나님은 직접 받아들이셨습니다. 숫자 읽기 – 11.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기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14:10 . 그 불평의 이면에는 – 상황을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이 목격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천, 수백만의 장자들이 어린양의 피로 덮이지 않았다면 죽음의 천사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 애굽인들이 준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남 (출애굽기 – 36) 12:35
-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 위의 바다 가운데 걸음 (출애굽기 – 22)12:21
-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을 죽임을 (출14:26-28)
-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육체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출13:20-22)
- 매일 아침 백만 파운드의 식량이 나타남 (출애굽기 16:11-15)

이 모든 일이 있는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볼 수 있는가? 몇 가지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왜 당신은 현재의 위기 속에서 의심합니까?*

**요점:** 불과 구름의 기둥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상기하십시오. 일기를 쓰세요. 매일 업데이트하십시오.

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매일 독서를 하면 우리의 "하늘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다른 사람들, 기도,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삼. 감추인 죄를 모두 고백한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깨끗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면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는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문제의 첫 징후가 보이면 기도하십시오. 여호사밧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 (역대하 20:6-12)

육. 하나님의 응답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십시오. 직업이 필요한 경우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분명한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응답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칠. 순종하십시오.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시에는 말이 안 되더라도. 순종이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22).

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본성 자체가 우리가 찬양받을 만합니다.

## 요약

만나에 싫증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심각한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찬양으로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분께 가야 한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족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모욕하지 말고, 불필요하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 맙시다.